



종조 멸도절 법어

“밀교중흥이 종조 유훈 기리는 길”



효 강 (불교총지종 종령)

오늘은 우리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님께서 열반에 드신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쁘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회에 동참해 주신

여러 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의 법맥을 이 땅에 다시 잇고 즉신성불의 대도를 열어 삼계의 중생을 모두 건지시겠다는 발원으로 40년 전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종도들은 원정종조님의 종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

이라는 대원에 의지하여 합심과 단결로써 수많은 간난신고를 헤쳐 오면서 오늘의 총지종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창종된 다른 종단과 비교해 보면 세계에 발돋움 할 응대한 종단을 만들어 만방에 밀교의 수승한 법을 펼치려고 하신 종조님의 유지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감이 들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승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도 여러분! 우리 종단도 이제 그 동안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창종 당시의 열

창종 당시 신심으로 새로운 도약

화 같은 추진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더욱 바르게 하고 대승불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일부는 아직도 고루한 생각에 얽매어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종단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용맹정진하며 종단의 안위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염려 덕분에 오늘도 우리 종단은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불교교류를 통하여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화 방안을 개발하려는 노력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시대에 따라 교화방편이 달라져야 하며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곧 생활불교여야 한다는 종조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교

화방편을 개발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한번 밀교중흥의

기치를 드높이는 것이 원정대성사의 유훈을 참되게 기리는 길입니다. 아울러 우리 총지종 종도들은 종조 원정대성사의 유지를 받들어 가치관 혼란의 이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스승과 교도가 화합 단결, 하나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단발전 위한 첫 승단 정책토론회 28일 개최

“종단운영 중장기 청사진 마련”



▲ 제 75회 춘계강공회

종단발전과 교화활성화 방안을 위한 승단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첫 토론회는 오는 9월 28일 12시 대전 만보사 1층 대강당에서 불사법요(佛事法要)와 의식(儀式)을 주제로 열린다. 세부 내용은 용도에 따른 다양한 불사의제 개발과 기존 불사법요집 개선, 전국 각 사원의 각종 불공법과 교화방편에 대한 설문조사, 법요 의식 집공과 독송방법, 등이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총지종 전 승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석은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

이번 승단 정책토론회는 각 분야별로 구체적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종단운영의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정책토론회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한 종단발전 방안과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정책 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제고, 일선사원 교화 사례방편 공유 등, 정보를 교류하고 활용하는 창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향후 매월 개최 될 토론회 분야별 내용으로는 불사법요와 의식 분야를 비롯해 △사원 도량 장엄과 시설활용 △승단행사와 교화방편 △인사 및 도제양성, 인력수급 △교육제도 △교리연구 학술 출판 △포교 및 불공, 상담, 수행 △중흥종법과 제도 △복지사업 △문화 포교 사업 △일선사원의 교화경험과 사례 발표, 교화방편 제시 △기타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춘계강공회 당시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밀교연구소 법경 정사는 “승단 전체 스승님들로부터 종단발전과 관련한 고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구상했다”며 “위에서 열거한 여러 분야 외에도 제한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승단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위원장: 지성 통리원장) 회의가 지난 8월 23일 대구 개천사에서 총무부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우재 기자

종조법설

마음 고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관음보살(觀音眞言) (음마니반메홍)을 오나가나 항상 의우고 하루 열 번 이상 자성참회 하면 탐진치삼독은 물러가고 본심이 일어나게 된다. 부처님께 불공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하는가. 내 마음을 닦고 밝히는 법을 세우려고 한다. 어리석은 것은 무엇인가. 사견(邪見)에 집착하여 인과(因果)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기사제보

총지종에서는 전국 각사원의 소식과 행사, 기타 미담과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보전화 : 02)552-1080-2 bota32@hanmail.net

“원정 대성사 유지 받들어 보살도 실천”

창종조 원정 대성사 30주기 멸도절

총지종 창종조 원정 대성사 열반 30주기 멸도절 추선불사가 오는 9월 8일 서울 총지사 원정기념관을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봉행된다.

효강 종령예하는 멸도절 법어에서 “시대에 따라 교화방편이 달라져야 하며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곧 생활불교여야 한다는 종조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강 종령은 이와함께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개발해 이 땅에 다시 한번 밀교중흥의 기치를 드높

이는 것이 원정대성사의 유훈을 참되게 기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성 통리원장은 멸도절을 맞아 “밀법홍포의 대원을 부촉하신 종조님의 큰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사상과 교상 연구에 매진하자”며 “종조님께서 제창하신 재생의세의 정신으로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총지종을 만들기 위해 용맹정진하자”고 말했다.

원정 대성사 열반 30주기 멸도절 추선불사는 헌화 및 훈향정공, 추선사, 종조 육성

법문, 창고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통밀교종단 총지종을 창종한 원정 대성사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했다. 본관은 일직(一直) 손(孫)씨, 속명은 대련(大鍊)이다.

대성사는 1980년 9월 8일 원적에 들기까지 해방 이후 한국에 ‘밀교’라는 용어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총지종과 진각종의 산과 역할을 하며 한국 현대밀교사 수립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제4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30일 부터

‘새로운 세대를 위한 불교’ 주제



▲ 지난해 열린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불교총지종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에 걸쳐 서울과 충남 공주 마곡사 등지에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불교’를 주제로 제4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총지종이 주관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2007년에서 첫 대회가 개최된 이래 올해로 4 회째를 맞는다.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 재가불자의 역할 모색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17개국 34명의 해외 재가불교지도자들과 재가불교운동 관련 학자와 승려들이 참가한다.

승속을 초월해 열린 불교를 표방하는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는 참가자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재가불자는 물론 출가 승려도 함께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회 첫날인 9월 30일에는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름 환영만찬, 총지사 참배 행사가 마련되며, 10월 1일 오전에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불교’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려 각국 참가자들이 의견발표를 한다.

1일 오후부터는 공주 마곡사로

이동 한국전통불교문화원에서 세미나가 진행되며 생활불교 관련 실천 방안 논의와 각국 대표의 재가불교활동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예산 수덕사, 대구 동화사 참배와 백제문화대전 관람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효강 종령 예하는 “이같은 의미 있는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재가불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의 협력과 단결을 통해 생활불교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행사를 통해 “재가불교종단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생활불교를 선도해 총지종의 위상을 드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종단발전과 교화활성화를 위한 승단 정책토론회

종단발전과 교화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승단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저 하오니 스승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불사법요와 의식」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스승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각 분야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오니 이번 제1차 정책토론회에 많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1. 일 시 : 총기39년(2010년) 9월 28일(화) 12시
2. 장 소 : 대전 만보사 1층 대강당
3. 주 제 : 불사법요(佛事法要)와 의식(儀式)
4. 질의응답 및 토론
5. 참석 대상자 : 승단의 모든 스승님 (자유 참석)
6. 발표자 : 법장원 연구원/중앙교육원장대행 화령 정사

풍경소리

꿈

새가 되고
싶다.
물이 되고
싶다.
바람이 되고
싶다.

그 어느 것
에도 걸림이
없이 푸른 하
늘을 훨훨 날
아다닐 수 있
는 새라면.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끼고 돌아가고, 산을 만나면 두 팔 가득 보듬어 안고 함께 가며, 가시철망 세멘콘크리트를 만나면 배밀이로 기어가다가, 흙을 만나면 땅 속 깊이 스며들어 마침내는 이윽고 팔팔 찰르르 흘러 갈 수 있는 물이라면.

늘 머물러 있으면서 늘 떠나고 늘 떠나면서도 늘 또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바람이라면.

김성동 / 소설가

아름다운 관계



벌은 꽃의 꿀을 따지만
꽃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도와 줍니다.
사람들도 남으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것만을 취하기 급급하여 남에게 상처를
내면
그 상처가 씌어
결국 내가 취할 근원조차 잃어버리고 만니
다.

사람과 사람사이에도
꽃과 벌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엔 삶의 향기가 가득하지 않을까요.

장용철 / 시인

지금

밤 늦은 시간,
막차를 기다리
는 두 사람을 보
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그들은 무척이나
괴로워 보였습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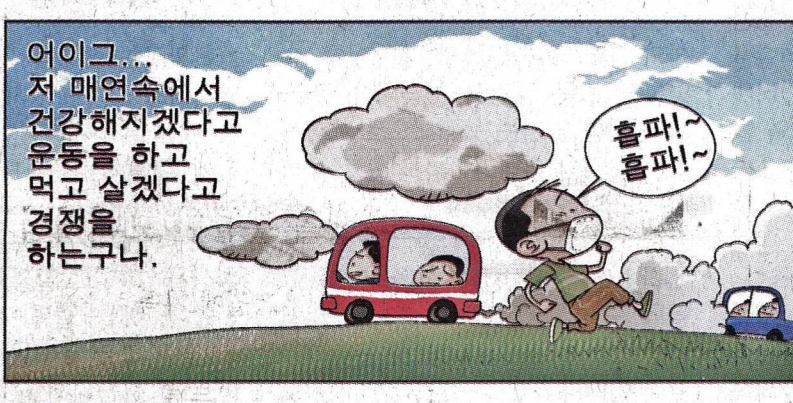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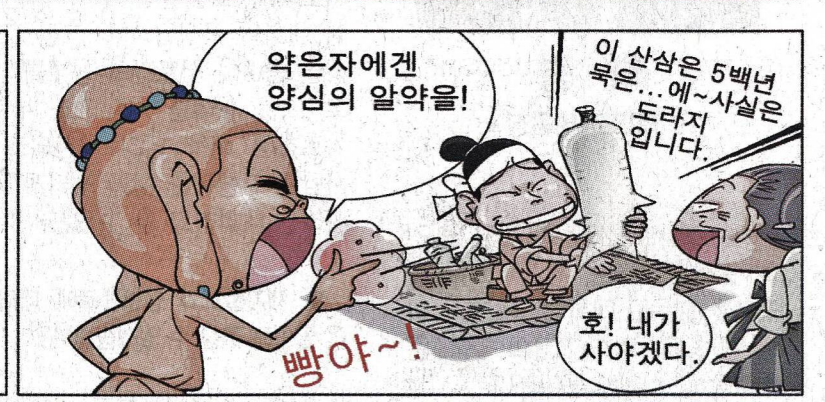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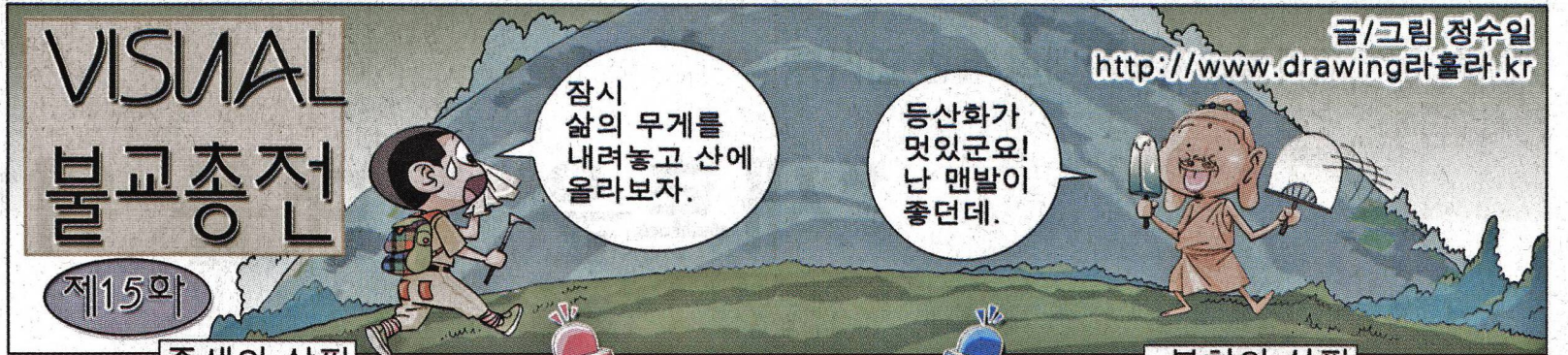
“그때 일반 생
각하면 밤에 잠
이 안 와”

“난 앞날만 생
각하면 아득해.
도무지 희망이

없어”
탄식하던 그들은 버스가 도착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근처 포장 마차로 들어가는
그들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일로,
오지 않은 미래의 일로
당신의 '지금'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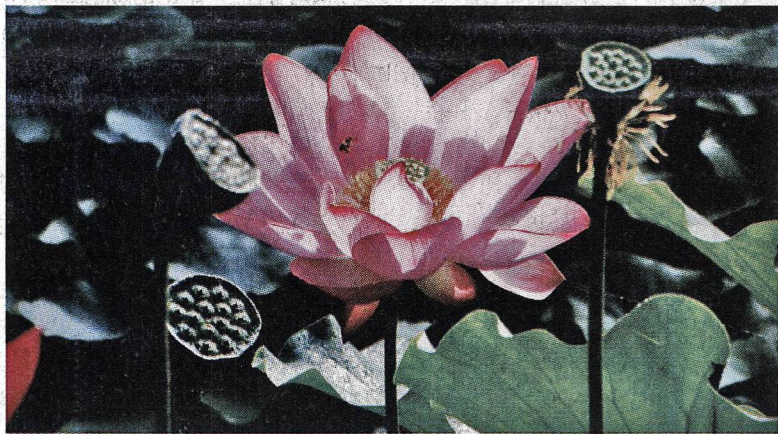
오세경 / 방송작가



내용참조: "불교총전" 교법편 25p-14

이달의 명상

불공의 대상



불공의 대상은 부처님이 아니다.
불공의 대상은 절밖에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미물이고 할 것 없이, 절 밖에 있는 일체중생이 불공의 대상이다.

-성철 스님의 '이 뭐고' 중에서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 30주기 멸도절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密敎)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 증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시고,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 하셨습니다.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 30주기 멸도절을 맞는 우리는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증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 합니다.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



▲ 원정 대성사 육자진언 친필.

제4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특별 인터뷰

“새로운 세대를 위한 불교”



화령 (대회조직위원장)

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이 드시겠지요. 우선 대회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대회는 명칭 그대로 재가불교지도자들의 국제적인 모임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재가불교지도자들이 재가불교의 철학을 정리하고 생활불교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대회의 목적입니다. 그런 토의 과정을 통하여 서로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그런 유대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널리 확산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재가불교와 생활불교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재가불교를 강조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출가주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출가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출가승단이 없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는 출가 여건이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재가불교에 치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명한 사찰은 전부 관광지가 되어버려서 수행도량의 역할을 하기 어렵지요. 거기다가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수단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과거처럼 속세와 결별하여 집중적인 수련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적한 곳에서 은둔하면서 수행하기를 원하지만 출가를 통하여 설혹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하여도 은둔과 세속과의 단절이 오히려 정신적, 육체적 짐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만의 세계에 안주하여 일신의 안락만을 구하는 극히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기가 쉽습니다.

출가는 불도를 이루기 위한 필수과정이 아니라 선택일 뿐입니다. 출가하지 않고서는 불도를 배우고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불교도의 대부분인 재가신도들은 아무 희망이 없다는 말인데 그레가지고서야 불교가 현대사회에서 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출가승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

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출가를 하려고 해도 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겠군요. 아무래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불교를 실천할 수 밖에 없겠지요. 생활불교는 재가불교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재가불교와 생활불교는 개념이 약간 다른데 재가불교는 출가불교와 상대되는 말이고 생활 불교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잘 실천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터 실천하지는 것이지요.

●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 전철 안에서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에너지 아껴 쓰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생활불교의 첫걸음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생활불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 중생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밥알 흘리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가든 재가든 일상 생활에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잘 살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제어하여 마음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가지면서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성불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일상 생활의 사소한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고답준론을 논하고 뜯구름 잡는 소리만 해낸다면 그거야 말로 기지도 못하면서 날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생활불교라는 것은 걷기 위해서 가는 것부터 열심히 하고 걸을 수 있게 되면 뛰는 것 연습하고 잘 뛰게 되면 그 때 가서 날아다닐

서로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 예년과 비교해서 대회의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번 대회에서 이것 말고도 뭐 특별한 논의되는 것은 없습니까?

국제적으로 재가불교지도자들이 모여 이렇게 생활불교를 논의하는 대회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은 재가불교, 생활불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아직도 재가불교와 생활불교에 대한 사상적 기반을 모색하고 확립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이런 대회가 진행되고 나면 서서히 재가불교, 생활불교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 될 것입니다.

이번에 특히 논의될 것 중의 하나는 이 대회를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 대회가 우리 총지종이 주축이 되어서 한국에서만 하는 대회로서는 국제적인 지명도를 얻기에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나라가 힘을 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총지종이 이런 의미있는 대회를 처음으로 발기하여 수 년간이나 개최했다는 것만으로도 세계 불교사에 남을 만한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원래하게 내다보고 발원을 하면 샘물이 큰 강이 되듯이 언젠가는 재가불자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불교가 전 세계에 유행할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 그런 날이 꼭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반드시 와야겠지요. 이번에는 해외에서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십니까? 참가국은 몇 나라가 됩니까?

현재 34명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고 참여국은 독일, 영국, 헝가리, 호주,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등의 서구 여러 나라와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등 다 합쳐서 17개 국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는 셈인데 중요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자비로 오신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불교관련 국제 행사를 보면 항공료와

“부처님 가르침 전하고 생활속 실천방안 모색” ‘생활불교’는 출·재가 넘어선 개념

상과 격리되어야만 불도를 이룰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출가는 육체적으로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집착과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구나 진정한 대승보살은 세속에서 세속중생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출가도 다시 세속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 평소부터 재가불교, 생활불교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 화령님께서 재가 불교의 철학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출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출가 여건이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오히려 재가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자는 말씀 같은데 미주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불자들이 출가를 하지 않고서도 재가불자로서 불도를 잘 실천한다고 들었

생활불교는 출가와 재가를 넘어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동안 불교는 깨달음에 대하여, 혹은 불교의 실천에 대하여 너무 관념적인 면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과 불교의 실천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일상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예를 들면 계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깨달음에 이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 주신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깨달음은 일상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극단의 고행이나 기행(奇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보살은 세속 가운데에 있으면서 때 묻지 않는 연꽃처럼 고결한 정신을 지니고 집착과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겠지요. 생활불교는 승속을 초월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쉬운 것

거 생각하지는 것이지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통하여 생활불교를 실천하자는 말씀 같은군요. 그런데 이번 대회의 주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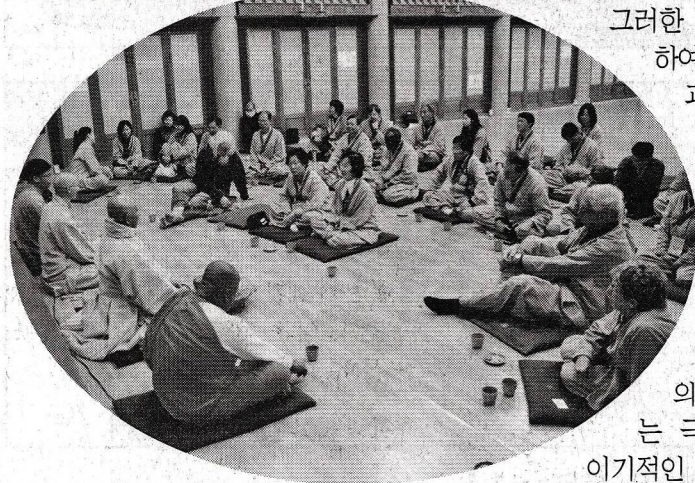
그동안 이 대회를 통하여 재가불교의 사상과 실천방향에 대한 것을 모색해 왔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불교’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인간성이 점점 황폐화되어가는 지금의 사회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에까지 온전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일상 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실천되어 개개인의 행복은 물론 온 사회, 온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재가불교의 철학과 재가불교의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한 것들을 부처로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세계불교지도자대회를 앞두고 대회 조직위원장 화령 정사에게 대회 개요와 일정, 준비과정 등에 대해 들어본다.

● 화령 정사님 안녕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가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이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회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줄 압니다.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열려 덕분에 지금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회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아무래도 열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그러시겠지요. 국내에서 하는 대회도 이런 ‘무모로 진행하려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닐텐데 국제대회인 만큼 ‘더욱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대회조직위



제2차 성지순례

밀교연구소 법경 정사와 함께 떠나는 “네팔·인도 불교성지순례 및 문화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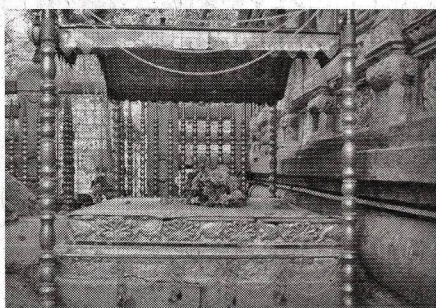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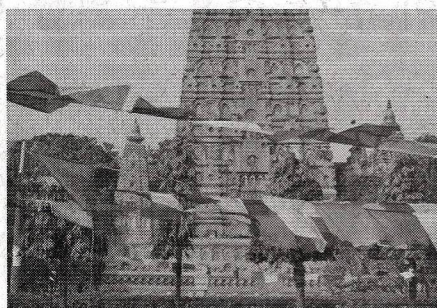
-네팔·인도 성지순례를 떠날 불제자들을 모집합니다-

(네팔불교교류 및 불교 8대성지순례와 네팔세계자연문화유산 탐방)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 등 불교의 8대 성지가 있는 「네팔과 인도」!!!

불교성지순례와 함께 히말라야 등 세계자연문화유산지로 떠나는 불교문화탐방을 통해 가슴 벅찬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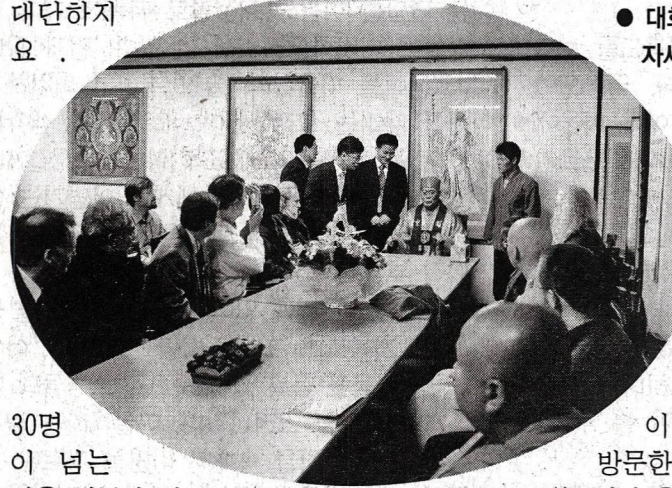
단순한 관광차원의 성지순례가 아니라 네팔불교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떠나는 성지순례와 문화탐방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11박12일 일정(네팔/인도) 및 비용 : 2011. 1. 17(월) - 1.24(월) (약 200만원) (· 최저출발인원 : 16명 · 비용은 일정변경 및 항공료 인상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 예약마감: 2010년 11월 15일 월요일)

“재가불자 중심 생활불교, 세계에 유행할 것”

체제 경비 일체를 부담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국력을 생각하면 불교계에서 아직도 이런 식으로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 대회에 비하면 우리가 개최하는 국제불교지도자대회는 대단하지요.



3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해외의 많은 분들이 우리 대회의 취지를 공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재가불자들의 역할이 날이 증대되고 생활불교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공감대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년에는 주로 10월 하순경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금년 10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10월 초로 대회를 당겼습니다. 금년에는 9월 30일에 시작해서 10월 4일에 공식적인 폐막을 하게 됩니다.

● 대회 장소와 일정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습니까?

9월 30일 올림픽 공원 안의 올림픽 파크 호텔에서 환영찬을 시작으로 대회가 시작됩니다. 만찬이 끝나고 종지사를 방문한 다음, 다음날인 10월 1일에 올림픽 파크텔 올림픽 피아룸에서 정식 개회식이 있습니다. 이 날은 개막식과 함께 주요 참가자들 및 내빈 소개와 기조 연설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오후에는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공주 마곡사

다. 10월 3일은 동화사를 둘러보고 백제문화대전을 관람하면서 외국에서 오신 지도자분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저녁에 환송만찬과 더불어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끝으로 전체 일정은 끝이 나고 10월 4일에 해산하게 됩니다.

● 장소 섭외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회장과 숙소 마련입니다. 우리 불교계에 수 백명을 수용할 만한 변변한 대회장 하나 없다는 게 무척 유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마다 호텔의 대형 행사를 임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외국 손님들이 편리하게 머무를 수 있는 숙소가 불교계에는 무척 드물다. 우리 종단부터도 대회장은 물론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템플 스테이를 한다는 곳에서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고려한 숙박시설이 마련된 곳은 흔치 않습니다. 그저 큰 방 몇 개 만들어 놓고는



하기 위해서 우리 종단이 국제불교문화센터를 건립하자고 제안했는데 불교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까지 공인된 사안인데도 진척이 안되니 추진실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심으로 발원하면 그것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일이요. 대회의 성과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꾸준히 지속하다 보면 어느날 큰 전기를 마련할 기회도 오겠지요.

종단 안에서도 이 기회를 빌어 좀 더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대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외국인이 오거나 참관자들이 몰려 오면 그들이 우리 교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답답하지요. 잘 이해시키지 못한 저희들의 불찰이기는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대회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려는 본인들의 노력도 좀 있어야 하는데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이번 집행부는 대회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예전에 비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 다행이군요. 그 밖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모든 일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대회를 준비하는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마음으로라도 성원을 해주신다면 훨씬 일이 수월하겠지요. 국제적인 대회가 되다보니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관건이라서 아무나 나서서 도와줄 일도 못하고 할 수 없이 몇몇 스텝들 위주로 일이 진행되다보니 어떤 분들은 소외감을 느껴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단 안에서 대회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기회도 없고 해서 오히려 해외보다 우리 종단 안이 더 이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와 의견을 교환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대회결과를 책자로 만들어 내는 데에도 그런 것을 보고 질문을 보내오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을 보면 아직도 재가불교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는 한참 멀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이제는 불교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원초적인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불교가 됩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활불교는 모두 행복으로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과 실천은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생활불교지요. 생활불교는 글자 그대로 불교를 생활하고 생활을 불교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승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재가불교를 강조하는 것은 불교도의 대부분이 재가불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의지하기 보다 스스로 행복의 길을 찾으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바로 재가불자 아닙니까? 재가불교 교육이 바로 되어야 출가승들도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불교에 대한 모든 가르침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성불의 길,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반드시 절에 가야만 경전을 구경할 수 있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재가불자들이 거대한 상가를 구축하여 불교를 길어잡아 전하고 생활 가운데서 불교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대회의 취지도 이런 것이고 이런 우리들의 미약한 노력이 언젠가는 큰 물줄기가 되어 불교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뜻있는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회의 원활한 성공을 모든 불자들이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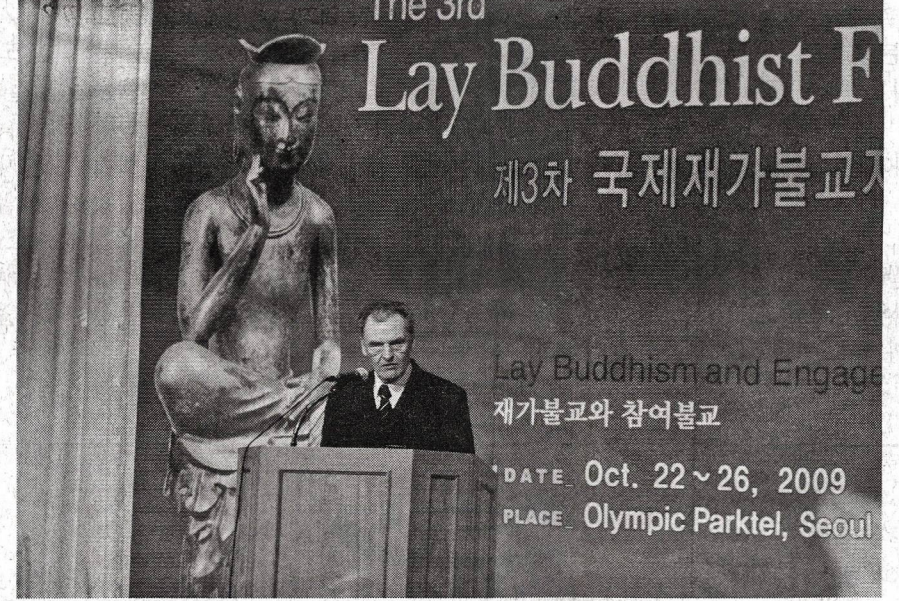
세계 17개국 34명 전문가 참석 “재가불교 바로 서면, 불교 바로 설 것”

● 참가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 인가요?

첫 대회부터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는 독일 랍텐 센터의 거스윈트 박사, 세계여성불자대회회장인 대만의 쟁위팅 박사, 태국의 불교대학학장을 역임한 봉수리엔 씨, 중국 최대의 불교 인터넷 사이트 '불교재현'의 안후성 회장 등이 올해도 찾아주시고, 일본의 '입장교정회' 해외담당장 리브스 씨, 스코틀랜드 불교승원장 리와타스님, 대만 불교청년회 회장, 왕축 국제승가청년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십니다. 그 밖에도 해외 여러 곳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직업의 재가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하십니다.

● 다양한 직업의 다양한 분들이 해마다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아직 짚어보지 못했군요. 대회 기간은 언제부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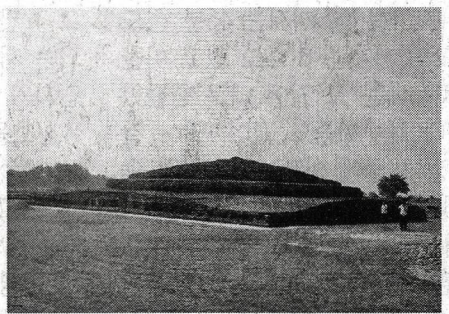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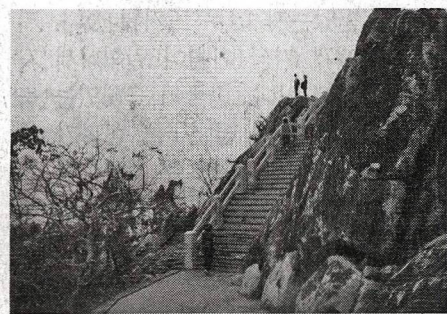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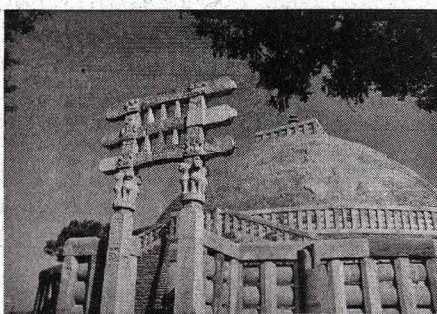
옆 한국전통불교문화원으로 이동해서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10월 2일에는 마곡사와 수덕사를 둘러보고 저녁에는 토론회를 갖습니다.



한데 모여서 자라는 식이지요. 아직은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시설이 외국인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

● 의미가 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에서는 홍보가 그다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 하시나요?

홍보라는 것은 하루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예산으로 충분히 홍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란하게 실속 없는 행사를 벌여 규모만 크게 하기 보다는 재가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생활불교의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개막식의 기조 연설 이외에는 모든 토의가 한국전통불교문화원으로 자리를 옮겨 발표자 상호간의 발표와 질의 위주로 진행됩니다. 저희들의 소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관심을 보여주는 분들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 문의/예약처 : 순례에 동참하실 분들은 아래로 문의,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중 단 : 불교 총지중 통리원 (☎ 02-552-1080~3) (장동욱 계장 : 010-9828-4083)
 - 여행사 : 네팔전문여행사 (주)한네인 투어 (☎ 02-418-5252) (윤준민 대리 : 010-4110-9837)
- 예약신청기간 : 2010년 9월 1일(수) ~ 11월 15일(월)
- 선착순 예약 : 예약이 초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십시오. (선착순 모집 : 최소인원 16명)
- 계약금 입금/원불 : 계약금은 예약시 50만원 납입, 잔금은 출발 30일전 입금 (계약시 여권상의 영문이름, 성별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확보 차원)
- 입금계좌 : 농협 100145 - 55 - 001693 (주)한네인투어
- 환 불 : 예약취소 등으로 인한 요금 환불은 '한국관광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 환불기준에 따릅니다.
- 여행일정 연기 및 취소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순례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천재지변과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경우
 - 현지 치안상황 등 여행지의 안전상의 경우
 - 2회에 걸쳐 최저출발인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단, 최저출발인원 미만시는 개인부담 요금이 증가됨)
- 요금변동 : 환율, 국제유가, 세금, 출발인원수 변동으로 인한 항공료, 현지체류비 등에 요금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 별도 선택관광과 1인 싱글룸 별도 이용시는 본인 부담입니다)
- 여권 및 비자 : 여권 및 비자 발급비용은 별도이며, 여권의 유효기간은 출발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팔 비자 : 37,000원 / 인도 비자 : 82,000원 / 합계 : 119,000원)
- 세부일정 : 세부일정은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www.chongji.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사정으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불교 4대 성지 : 룸비니 동산(부처님 탄생지), 붓다가야(부처님 성도지), 바라나시 녹야원(부처님 초전법륜지), 쿠시나가라(부처님 열반지)
- ★ 불교 8대 성지 : 4대 성지 + 상카샤(성도후 도솔천으로 올라간 곳), 사위성 기원정사(주요 교화지), 왕사성 죽림정사(주요 교화지), 배살리(마지막 설법지)

날마다 좋은날

이열치열(以熱治熱)의 지혜

자인행 (마산 운천사)

폭염이 8월의 마지막 꼬리까지 물고 맹위를 떨치던 지난 주말 저녁 고 3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다.

내가 먼저 이열치열이니 더위는 더위로 이겨야 한다고 말을 꺼내놓은 지라 에어컨 앞 시원한 자리가 비어 있어도 옮기지 말도 못했다.

같은 경우 에어컨의 기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여기 저기서 쪼개나 탕이라도 끓이는 집이라면, 에어컨 바로 코앞에 앉지 않은 이상 금새 옷등에 땀방울이 맺힌다.

같은 경우 에어컨의 기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여기 저기서 쪼개나 탕이라도 끓이는 집이라면, 에어컨 바로 코앞에 앉지 않은 이상 금새 옷등에 땀방울이 맺힌다.

하지만 몸은 혹사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나 있을까. 여름철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속에 열이 생기고 그 열은 독소와 함께 땀으로 배출된다.

아이들이 시원한곳 놔두고 왜 더운데 굳이 이 자리를 고집하느냐며 불평을 나에게 쏟아 놓았지만 차마 다시 자리 옮기기가 귀찮아서라고 말 못하고 더위는 더위로 이겨야 한다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박은 참으로 시원했다. 지나가는 이들은 연신 부채질이나 혹은 손수건으로 목뒤통의 흘려내리는 땀을 닦으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방금까지 시뻘건 숯불 앞에 앉아 있다가 나온 우리들은 밖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많은 식당에서 에어컨을 최대로 가동하고 있다. 손님들을 위한 배려이다. 단장 나부터도 식당에서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우리들 이야기

어쩌란 말이나

강건너 그옥한 향기
담아도 건널 수가 없는데
어쩌란 말이나 살아온 죄는
가시밭길 가는데

술을 마셔보고
담배연기
깊은 한숨에
날려보건만
소망마저 할 수 없는 가련한
사랑은 통곡하고
어두운 밤 하늘에
저 별도 서럽게 흐느껴 울고 있다
어쩌란 말이나
함께하면 애뿐 내님이 불행해 질
텐데...*

-일송정(다음카페 진언행자 cafe.daum.net/chongjisa)

생활상식

벽의 크레파스 닦는 지우기

벽에 크레파스로 낙서한 것을 지우려면 우선 휘발유로 닦습니다.

남아 있다면 휘발유가 증발된 뒤에 고온 사포로 살짝 문질러 주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단,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휘발유로 넓게 닦지 말고, 닦는 천을 세밀하게 오므려서 낙서 옆으로 많이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커피 얼룩 제거하기

하얀 면 티에 커피를 흘렸을 때, 집에 있는 과산화수소수를 면 티의 얼룩 부분에 적당히 적어 두도록 문지르면 얼룩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옷에 묻은 매니큐어를 제거하기

매니큐어를 바르다 보면 많이 찍어 바르다가 상의나 바지에 떨어뜨렸을 때는 손톱의 매니큐어를 지울 때처럼, 화장 솜에 아세톤(매니큐어 제거 액)

을 적당히 묻혀서 묻은 부위에 찍어내듯 눌러 어느 정도 빠지고 난 후에, 세제를 평소보다 많이 넣어 세탁하면 웬만한 얼룩은 다 제거됩니다.

화장실용 신발 바닥의 때를 제거하기

화장실용 신발 바닥에 검은 물 때가 끼었을 때, 락스에 적셔도 깨끗이 빠지지 않을 때는 락스를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서 뿌려 씻으면 신발 바닥이 깨끗해집니다.

옷에 땀 냄새 제거하기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 땀 냄새가 옷에 배는 경우에는 암모니아와 물을 1:1로 섞어서 빨고 다시 비눗물로 빨면 훨씬 더 냄새가 잘 제거됩니다.

먹다 남은 콜라를 청소소에 활용

먹다 남은 콜라를 버리기 아까울 때는 화장실을 청소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변기에 락스로 청소하고 락스 냄새가 남아 있을 때 콜라를 뿌려주면 락스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무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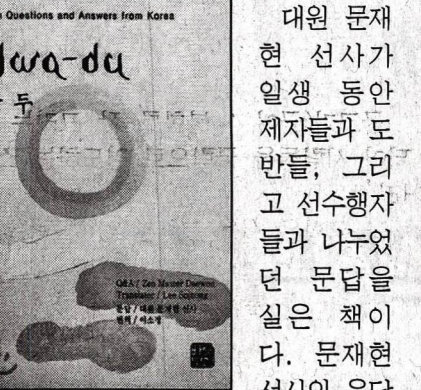
보조국사 지눌스님은 “무심이란 마음에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일에 걸리는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비었으면서도 신령하고, 고요하면서도 묘한 것이다. 그것은 망심이 없다는 것이다. 참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윤우채 기자

이달의 추천도서

화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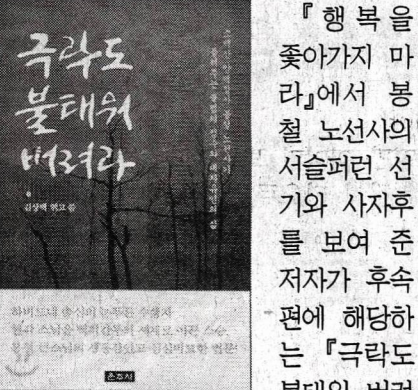
문재현지음/ 바로보인



대원 문재현 선사가 일생 동안 제자들과 도반들, 그리고 선 수행자들과 나누었던 문답을 실은 책이다. 문재현 선사의 응답은 망설임이나 돌아감 없이 명쾌하고 간결하다.

극락도 불태워 버려라

김삼백 지음/운주사



『행복을 쫓아가지 마라』에서 붕철 노선사의 서슬퍼런 선기와 사자후를 보여 준 저자가 후속편에 해당하는 『극락도 불태워 버려라』를 엮었다.

달마는 너쪽에서 오지 않았다

보리달마지음/덕산스님 옮김/비움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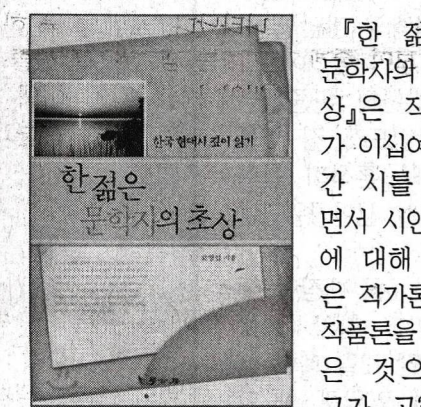


보리 달마의 어록을 번역한 책 우리에게 달마대사는 친숙한 사람이다. 불자가 아니라도 달마도를 통해 접한 사람이 많다.

동안 한국 불교계는 간화선이 주류였지만, 일반인은 간화선을 어렵게 느껴왔다. 저마다 지닌 불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수행한다면 참선 뿐만 아니라

한 젊은 문학자의 초상

고영섭 지음/학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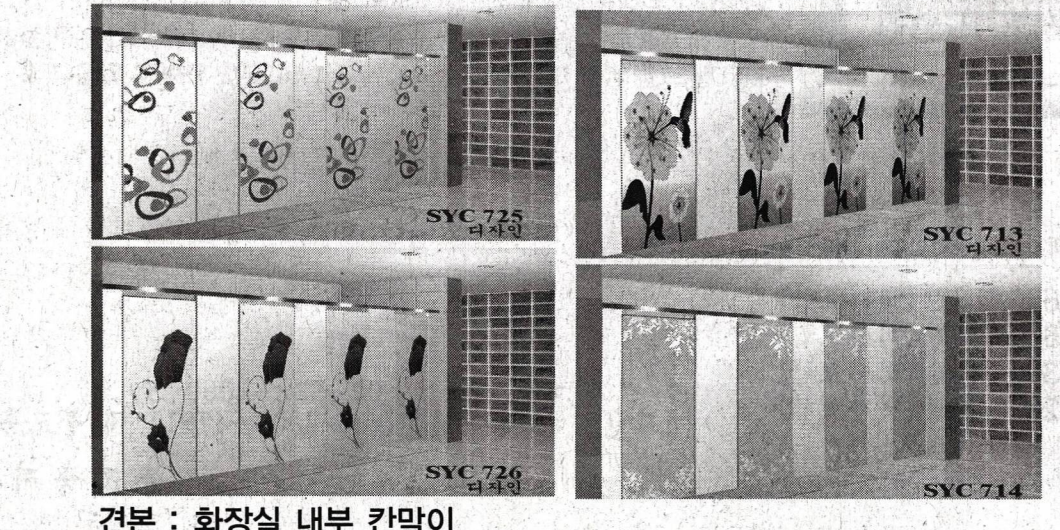


『한 젊은 문학자의 초상』은 작가가 이십여년간 시를 쓰면서 시인들에 대해 적은 작가론과 작품론을 모은 것으로 그가 고3때 쓴 「비술과 영생: 미당 서정주론」을 비롯하여 약 20명의 시인에 대한 글이 담겨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신개념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신양큐비스』

생산에서 판매,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

- 신양큐비스는 쾌적하고 아늑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인테리어 전문 기업입니다.
큐비클 생산/ 판매/ 시공 전문 기업
학교, 휴게소,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 대상 건물의 화장실 칸막이 전문업체.



대표 김 한 옥
Mobile, 010-8953-2304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251-8
E-mail, okkimy@paran.com
TEL, 031-403-7395~6
http://www.sycubis.com
FAX, 031-403-7349
<서울총지사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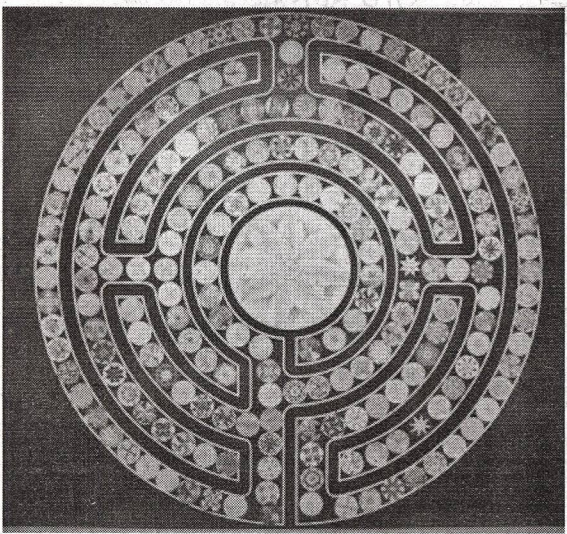
신양큐비스
큐비클 생산 / 판매 / 시공

동대 일산병원 '만다라 아트'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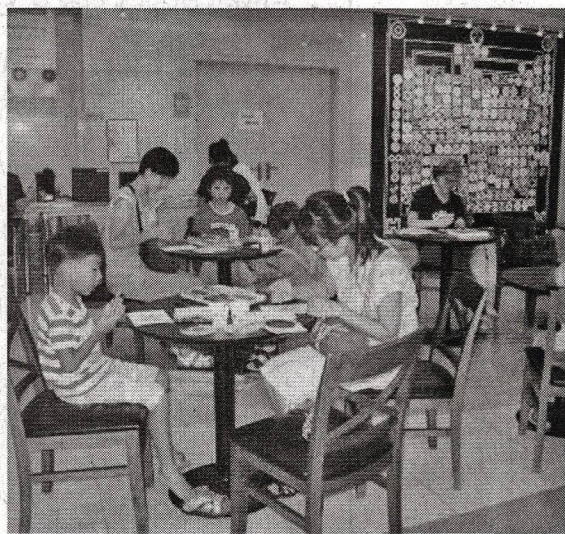
불교계 노력으로, '왕실의궤' 반환된다

“만다라 그리며 심신 치유”

조선왕실의궤 81종 88년 만에 고국으로



▲ 환자와 방문객들이 재구성한 만다라



▲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열린 만다라를 이용한 아트메디테이션(Art meditation) 행사.

동국대 일산병원(병원장 이진호)과 선문화진흥원(원장 강진구)은 지난 8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병원 1층 로비에서 만다라를 이용한 아트메디테이션(Art meditati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는 '3S(Simple, Smart, Speed)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일 오전 11시~2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환자와 병원 내 방객들은 의상 대사의 대형 '화엄일승법계도'와 만다라판에 자

신의 내면을 담은 제목이나 글, 이름을 써 놓았다.

조애리 선문화진흥원 아트메디테이션 강사는 "병원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처음인데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내 안에 잠재져 있던 것이 풀려 나온다"며 "재미있고 편안하다"고 말했다.

만다라아트 프로그램은 만다라를 감상하거나 그리기 작업으로 내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심리치유 프로그램이다. 만다

라는 원상(圓相)이라는 의미로 내적 중심과 본질을 얻는 것을 뜻한다. 신성한 단에 부처와 보살을 배치한 그림으로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1세기 말 경 불상과 보살상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조성된 것이 7세기 만다라를 발생시켰다. 힌두 tantra도상인 안트라를 밀교에서도 받아들여 본격적인 밀교 만다라가 조성됐다. 또 세계인속 풍습으로 병을 치유하기 위해 그려지거나 안전을 위한 주술적 용도로 그려지기도 했다.

한편 아트메디테이션(Art meditation)은 그림, 만들기, 춤 등의 다양한 표현 예술 치료기법과 통합심리학, 현대분석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억눌려있던 자신의 감정과 문제를 표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들을 해소해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이 되도록 돕는다.

만다라 아트 컬러링은 어린이 절 누구나 해 볼수 있는 색칠공부와 같은 식으로 진행된다. 밀바탕에 그려진 만다라 그림에 여러 가지 색과 방법을 이용해 색을 칠하며 내적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한다. 같은 문양에도 각기 다른 제목과 모양을 만들어 내고 있다.

만다라 그리기 명상을 매일 하면 내적고요, 마음의 조화와 균형,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오는 힘, 집중력 향상 등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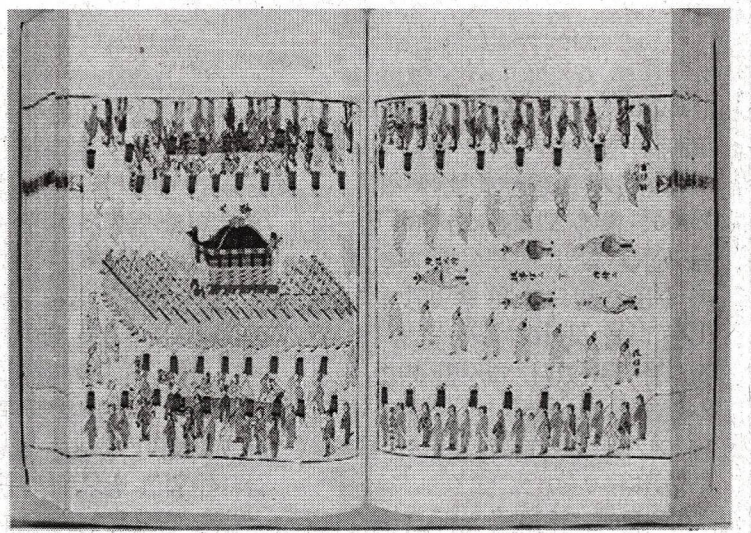
현대에 와서는 심리치유나 개인의 자아치유를 위해 그려지고 있다. 분석적이며 이성적인 한계점과 일상에서 느끼는 심리적 병을 치유하기 위해 그려지거나 안전을 위한 주술적 용도로 그려지고 있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일본 왕실이 보관하고 있던 조선왕실의궤 81종이 8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8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한 총리담화를 통해 한일강제병합과 식민지배 강제성을 시인하며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가까운 시일에 이를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궁내청 소장 의궤는 강원도 평창 오대산 사고에 보관돼 있다. 가 한·일 강제병합 후인 1922년 조선총독부가 반출한 81종 167책. 총독부는 의궤를 일본 왕실에 기증해 88년간 일본 궁내청 서부부에 소장돼 있었다.

반환 의궤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명성황후국장도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시해당한 뒤, 2년 2개월간을 걸쳐 일어난 파란만장한 국상(國喪)을 기록한 것으로 조선시대 제작된 국장도감의궤 중 가장 길다. 정부 불안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삶과 자기의와 통합, 우주와의 합일을 찾으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욕구를 표현한다.



▲ 명성황후국장도감 발인반차도.

이 자리에서 김의정 환수위 공동대표는 "이번 의궤 반환은 정적 입장을 떠나 인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2006년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했던 일이 현실화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수위 사무처장 해문스님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이 주도해 반환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

조 및 남북 공조로 의궤가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이 모든 기쁨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문스님은 이어 "조선왕실의궤가 돌아오는 것은 일본 총리 담화의 '사죄' 표현을 넘어서 한 일 관계 진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의궤뿐 아니라 대한제국의 소유였으며 현재 일본 궁내청에 소장된 '제실도서'와 다른 문화재 등에 대한 환수 운동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9월 14일 발족한 환수위는 일본대사관에 의궤 반환요청서를 공식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故 앙드레 김 장례식 불교식으로 엄수

생전 진관사서 불교 신행



▲ 2009년 진관사 방문 모습.

8월 12일 별세한 원로 패션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본명 김봉남)의 장례식이 유족과 지인들의 애도 속에 15일 오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에서 엄숙하게 치러졌다.

생전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고인의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치러졌고 유족과 지인, 연예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스님들의 독경 속에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고인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께 지난 13일 추서된 금관문화훈장과 영정에 이어 장례식장 밖 운구차량으로 이동했다. 운구차량은 생전 흰색을 가장 사랑했던 고인의 뜻을 받들어 흰색 차량이 준비됐다.

시신은 고인이 30년 넘게 살았던 압구정동 자택과 강남구 신사동의 앙드레 김 '아틀리에' 그리고 고인이 지난해 완공했던 경기도 기흥의 앙드레 김 '아틀리에'까지 고인의 흔적이 묻어 있는 곳들을 거쳐 천안공원묘원에 안장됐다.

고인은 2005년 5월 대장암 및 담석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해오던 중 지난달 12일 폐렴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 12일 오후 병세가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1962년 서울에서 첫 패션쇼를 열고 한국 최초의 남성 패션디자이너로 데뷔한 고인은 이후 전세계 곳곳에서 수백차례 패션쇼를 열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패션을 세계에 알렸다.

한편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는 8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故) 앙드레 김이 진관사 신도로 매년 봉축 때 절에 찾아와 등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 씨는 불자인 모친에 영향을 받아 불교 신행을 했으며 서울 봉은사와 화성 용주사도 가끔 찾아 참배를 했다.

진리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태장계 만다라 ***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개대비야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 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생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양의 증대팔명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계신, 인등 모두 414점이 모셔져 있습니다.

*** 금강계 만다라 ***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계,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에게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양의 생신의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계신, 연경천불등 모두 1,461점이 모셔져 있습니다.

※ 구성표

▲ 사이즈 및 가격 (태장계, 금강계 만다라 가격 동일)

- ▶ 1000 x 1000 1개 650,000원 (액자포함)
- ▶ 750 x 750 1개 500,000원 (액자포함)
- ▶ 500 x 500 1개 300,000원 (액자포함)
- ▶ 250 x 250 1개 200,000원 (액자포함)

* 문의처: 통리원 T. 02-552-1080~3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480-047811 예) 불교총지총

불교총지총

한국불교 세계화 위해 UN 등 방문

사찰음식 · 템플스테이 홍보도

조계종은 9월 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45명의 방문단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미국 LA · 뉴욕을 방문한다"며 공식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미국 방문과 관련 조계종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말만 무성했던 한국불교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왔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미국방문이 세계화 전략 및 사업 추진에 물꼬를 틀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미국 방문단은 10박 11일의 방미기간 동안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간담회 △한인교포를 위한 대법회 △2010 뉴욕 한국사찰음식의 날 △유엔 방문 △뉴욕주대 종교지도자 간

담회 등의 일정을 전개한다.

이들 일정 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9월 17일 있을 유엔 방문. 자승스님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종교지도자 교류에 대한 유엔 협력 △아이티 등 국제구호 활동을 위한 유네스코 협력 방안 △한반도 긴장완화 및 민간교류 활성화 협력 등을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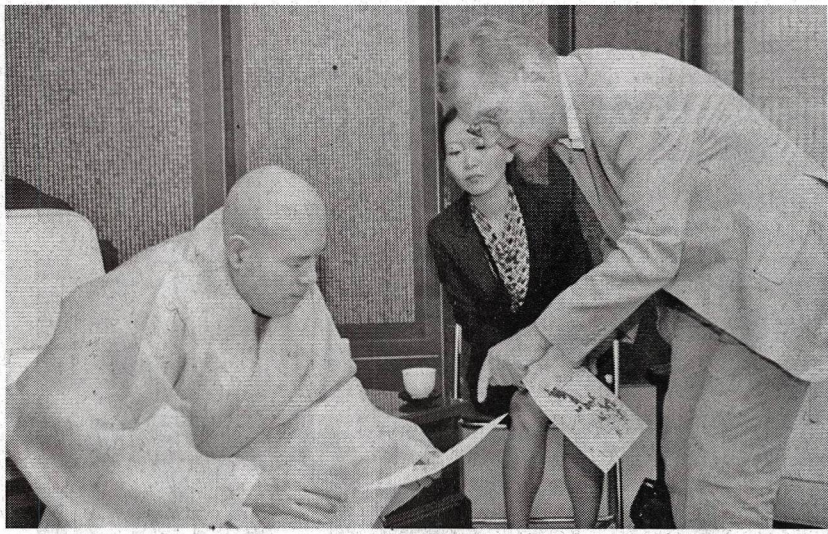
원담스님은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세계 유네스코와 함께 추진할 '위기가 어린이 교육 사업' 진행을 위한 유엔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세계 종교지도자 대화 포럼 개최 및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유엔의 동참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계종 측은 '위기가 어린이 교육사업'과 관련된 한국 유네스코와 실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음식 세계화를 위한 행사도 개최된다. 9월 20일 뉴욕 맨하탄 Skylight Soho에서는 '2010 뉴욕 한국사찰음식의 날' 행사에 미국 유명인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행사에서는 30여 가지 사찰음식이 전채 · 메인 · 후식 등 뷔페식으로 초청 인사들에게 제공된다. 행사에는 이와 함께 발우공양 기본 상차림 전시 및 한국 전통차 시음코너 등도 선보인다.

WFP, 불교계에 북한 식량지원 요청

북한담당관 토벤 듀에, 조계종 방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불교가 한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만큼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자승 스님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대북 지원활동 등을 설명한 뒤 "임산부와 어린이들의 영양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해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정부는 빚장을 열 때라고 판단된다"면서 "인도적 식량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같이 노력하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불교TV, IPTV 방송 개시 KT COOK TV 채널554

IPTV에서도 BTN 불교TV 시청이 가능해졌다. 불교TV는 "8월 16일부터 KT COOKTV를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며 "이로써 BTN은 전국 96개 지역 케이블방송망을 기본으로 1400만, 위성 스키아이프 411만 500만, 미주지역 동시중계에 이어 인터넷 기반 100만 회선 시청기구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교TV는 채널번호 554번으로 우선 방송되며 차후 채널 조정 시 우선채널로 카테고리 이동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IPTV에는 BBS 불교방송이 불교 관련 콘텐츠로 영상포교를 담당해 왔으나, 불교TV의 진출로 가칭 채널이 보다 다양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02)3270-8355

▲ 토벤 듀에 WFP북한담당관이 불교계에 북한 식량지원을 요청했다.

토벤 듀에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이하 WFP) 북한담당관은 8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북한과 관련해 정치적 현안만 이슈화 될 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현실 전파와 인도적 지원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토벤 듀에 북한담당관은 이날 방문에서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임산부와 어린이들이 지방·단

백질 등 영양분 부족으로 성장 장애를 유발해 발육이 멈춘 상황"이라며 "불교계가 나서서 북한 현실을 알려 국민과 정부를 움직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8년 북한을 방문해 각지를 돌아다녀 현실을 잘 알고 있고 한국 정부에 수차례 (대북 지원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다. 심지어 인도적 차원이라도 북한이기에 지원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인간의 생존권 문제에 정치적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면서 "WFP가 북한 어린이 영양부족 사태

에 대해 북한 담당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폭우 피해로 신의주 지역 농경지에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북한 정부가 UN에 공식적으로 구호요청을 했다. 하지만 WFP도 접근 수단이 없어 구체적인 구호요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북한 정부가 5월 '국가 차원 식량 공급이 어렵다. 각자 구하라'며 공식적인 식량배급을 중단함에

팔만대장경 수호 김영환 장군 금관문화훈장 추서

합천 해인사사 호국추모재



▲ 8월 21일 합천 해인사에서 봉행된 김영환 장군 추모재

6.25전쟁 당시 해인총림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에 대한 폭격 명령을 거부하고 귀중한 세계문화 유산을 지켜냈던 김영환 장군(1921~1954)에게 금관문화훈장 추서와 함께 호국정신을 기리는 호국추모제가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봉행됐다.

8월 21일 해인사 대적광전 앞 탐마당에서 봉행된 '故 김영환 장군 문화훈장 추서 및 호국추모제'는 올해 6.25 발발 60주년을 맞아 장군이 지켜낸 팔만대장경으로 오는 2011년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이날 오전10시 '대종 5타'의 장중한 범종소리와 공군군악대의 연주로 시작된 김 장군의 추모의식에는 법전 종정예하와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 교육위원장 현승스님,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 등 불교계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김두관 경남도지사,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이근우 문화재청장, 정종인 대장경축전 조직위원장 등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장군을 추모하는 법전 종정에 하의 분향과 헌화, 헌다와 금관문화훈장(1등급) 추서 등에 이어 해인사는 공군사관학교에 장학

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유가족 대표로 금관훈장을 받은 김 장군의 아들 김정기 씨는 "해인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훈장 추서와 추모제를 가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왕의 무공심정에 더해 문화훈장에 담긴 역사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훈장을 해인사에서 보관·전시 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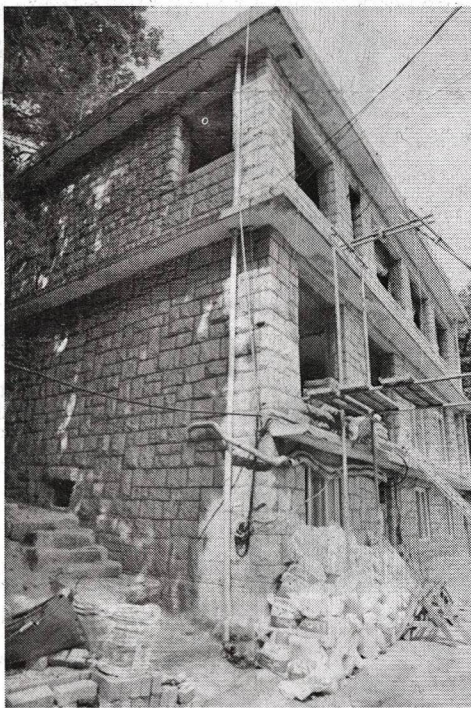
고(故) 김영환 장군은 1951년 8월, 가이산에 숨어든 북한군을 소탕하기 위해 출격했던 공군비행단의 편대장(당시 대령)으로서, 폭격지점이 해인사임을 확인 하고는 '인민군 수백 명을 놓치지라도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인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결코 폭격할 수 없다'는 소신으로 공격을 포기했었다.

또 영화로 제작되어 공전의 히트작이 된 '빨간 마후라'를 직접 고안한 장본인으로 알려진 김영환 장군은 이번 훈장추서로 호국의 보라매에서 이제 문무경전의 문화재수호의 표상이 됐다.

현재 해인사 장경관장과 대장경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으며, 2011년 9월23일부터 45일간 해인사와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개최된다.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복원불사 추진

6년간 문 걸어 잠그고 용맹정진한 도량



▲ 천축사 무문관

등이 배출됐다. 79년 문을 닫은 뒤 한때 상설 개방형 시민 선방으로 변모시켜 '선객'들을 맞기도 했지만 지금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무문관의 마지막 수좌였던 원공 스님에 이어 천축사 주지를 맡은 유방 스님이 복원불사의 원을 세웠다. 천축사는 용맹정진의 상징인 무문관 시대를 개척한 이 건물을 새롭게 복원해 수행납자들의 귀의처로, 사부대중 모두에게 개방해 수행처로 삼을 계획이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선지식들의 수행정신을 전하겠다는 의지다. 빠르면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무문관은 불사 당시 유영수 여사, 이후라 중앙정보부장, 최치환 국회의원 등이 10만원을 보신했다. 공화당 정권의 핵심인물이었던 김성곤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무수한 사부대중들이 거금을 쾌척해 불사가 이뤄졌다. 오 선덕행 보살은 무려 100만원을 보신했다. 외벽에 이들의 이름과 보시금액을 새긴 '무문관 창건 시주功德비'라는 이름의 검정색 기와가 붙어있다. 유방 스님은 "선대들의 수행가풍을 복원해 한국불교중흥의 디딤돌이 될 천축사 무문관 불사가 원만회향할 수 있도록 재방의 스님과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천축사는 도봉산 만장봉 동쪽에 자리한 신라 문무왕 13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도량이다. 경관이 천축국(인도)의 영축산과 닮았다고 해 천축사라 불리워진다. 법당과 무문관에서 서울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기도영험도량이라는 기록이 전해진다. 문정왕후가 하사한 화류수목오상상(樺樹木彫龍床)과 천축사 편액이 전해진다. 도봉산입구 주차장에서 1시간이면 오를 수 있다.

▶ 동침제교 : 하니은행 235-910006-20504(예금주 천축사)

승광사 목조관음상 등 보물지정

평담한 미의식 반영된 17세기 대표작

순천 승광사 관음전의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 등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이진우)은 "순천 승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등 5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보물 제1660호 '순천 승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은 순천 승광사 관음전의 목조관음보살좌상과 그 복장유물이다. 복장유물은 경전과 옷가지 등 35점이다. 특히 배자와 경안군(慶安君)의 것으로 추정되는 쪽빛 저고리 안에 적혀 있는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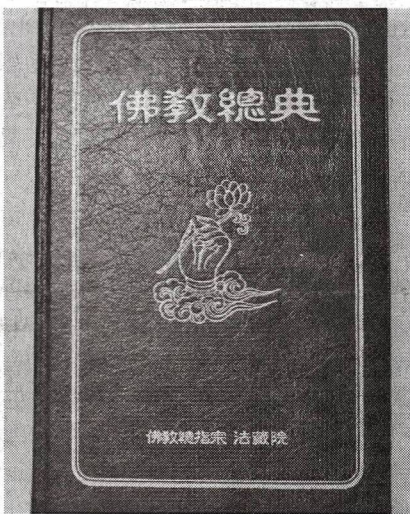


▲ 승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원문은 불상을 모신 배경과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경안군은 청나라에 불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의 아들이다. 이 불상은 17세기 중엽을 대표하는 조각승 해회·금문 스님의 작품이다. 1662년 공중나인 노예 성(盧禮成)이 경안군 내외가 오

래 살 것을 기원하며,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취미수초(齋微守初) 스님 등의 시주로 조성됐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오춘영 학예연구관은 "이 불상은 조선 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인 대중적인 평담한 미의식이 절제 반영돼 있는 등 조성 배경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 조각의 완성도에서도 이 시기 불상 중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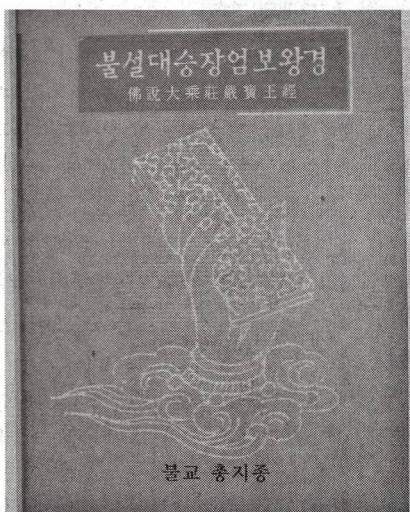
보물 제1661호 '순천 승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적적'은 순천 승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 복장됐던 복장유물 중 중요 불교경전 8점이다. 복장된 경전 중 <대방광불화엄경합론(大方廣佛華嚴經合論)>은 이권생(李權生), 박문손(朴文孫), 유악(柳約) 등이 관하본을 쓰고, 전라도 광주목(全羅道 光州牧)으로 하여금 판각, 간행하게 한 간경도감본 교장(敎藏)이다.



불교총전은 통불교적인 입장에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여러 경전 중 그 핵심을 가려 뽑아 편찬되었다. 이 책은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불교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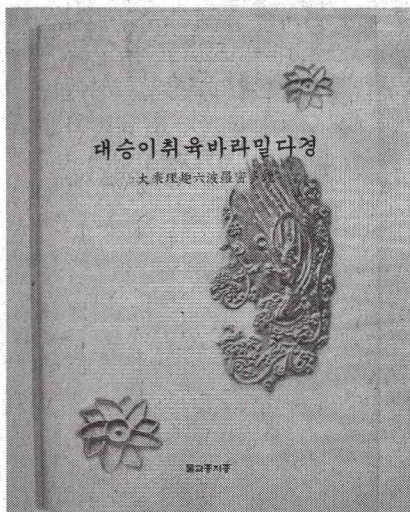
국판/정가 35,000원/ 불교총지중 출판부



육자대명왕진언(육마니반메춤)의 유래와 공덕을 철한 경전으로 본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다.

불설대승장엄보왕경

변형국판/정가 7,000원/ 불교총지중 출판부



총지종의 소의 경전. 반야 사상에 기초하여 보살이 닦아야 할 여섯가지 바라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 궁극적 지혜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준다.

대승이취육바라밀경

국판/정가 15,000원/ 불교총지중 출판부



△입교개종 △교의대강 △육마니반메춤 △총지중 지표 △밀교란 무엇인가 △밀교의 역사 △육합상 해설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갈라 사진과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어 총지종의 전반에 걸친 이해가 가능하다.

정통밀교불교총지중

변형국판/ 불교총지중 출판부

기 고

서유럽 여행기③

물의 도시 베니스 / 아름다운 동화의 나라 휘센

이 인 성

(총 기사)

◆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이다. 몇 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이루어져 1,400여 개의 방들이 있으며 역대 교황들이 모은 수집품을 전시하고 있다. 바티칸 박물관의 수집품들은 고대 시리아, 그리스, 로마, 이집트와 르네상스 시대의 역사적인 유물과 조각, 그림, 태피스트리, 지도 등으로 역사적 예술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 성베드로 대성당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거대한 반구형 돔이 인상적이다. 로마 르네상스 건축의 정점으로 평가되고 있

해 있는데 처음에는 로마의 중심지로 변두리 성의 사람들이 모이던 시장터였다가 하수도도 만들어 B·C 6세기 경부터 삼정, 건물들이 들어서고 도시의 기능이 충실해져 상업, 종교,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다.

세계 최초의 독립국 바티칸 시국을 방문하여 바티칸 박물관을 관광하였다. 시스타나 예배당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은 참으로 대단한 걸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카톨릭의 본산지 성베드로 성당 관광을 마치고 중식 후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로마제국의 중심지 포로 로마노, 트레비 분수 등 유적지 및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 탑승하여 시내 관광을 했다.

◆ 두오모 성당

5월 28일 르네상스의 발원지인 북

도시설계를 잘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의 배경이 되었던 시노리아 광장, 단테 생가, 피렌체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미켈란젤로 언덕을 보고 베니스로 이동했다. 로마에서 피렌체는 약 300킬로미터 4시간이 소요되고, 피렌체에서 베니스는 약 270킬로미터에 3시간 30분이 걸린다.

5월 29일 선착장에서 운하를 건너 베니스의 본토로 진입한 후 나폴레옹이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고 격찬한 곳인 산 마르코 광장, 베니스의 상징인 산 마르코 성당, 두칼레 궁전과 카사노바가 감금되었던 감옥을 연결하는 다리로 죄수들의 한탄에서 그 이름이 비롯된 탄식의 다리를 관광했다.

◆ 산마르코 광장

길이 175미터 폭 80미터인 거대한 '살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광장 위에는 흰 대리석의 열주가 늘어서 있다.

◆ 산마르코 성당

베네치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원으로 829-832년 이집트에서 모셔 온 성 마르코의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 납골당이 세워졌다. 건축양식은 비잔틴과 서양식을 합쳐 놓은 것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고, 1063년부터 1073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 두칼레 궁전

9세기 베네치아 공국 총독의 사저였으며 산마르코 광장이 베네치아의 종교적인 상징이라면, 두칼레 궁은 바다 위의 공화국 이었던 베네치아의 정치, 군사, 예술 전 분야를 상징하는 위대한 건축물이다.

◆ 탄식의 다리

17세기 경 놓아졌으며, 총독 궁과 교도소를 연결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기로 이름 높았던 베네치아 법치주의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과거 이곳의 교도소에 카사노바가 감금된 적이 있었는데 탈출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평의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죄인이 이 다리를 건너 감옥으로 가면서 바깥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 독일의 고품스러운 스타디움. 차범근 선수가 경기하기도 했다.

도로 바다 위에서 살았다. 한 달에 150만명 정도 관광 온다. 육지와 바다가 연결되어 4킬로미터 정도 된다. 베네치아는 골목길이 복잡해 찾기 힘들다. 그리스, 터키로 다니는 크루즈 배가 있다. 크리스탈을 만드는데 소리, 색상, 강도가 중요하고 중국인들이 질 낮은 크리스탈을 만들어 이곳 장인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베니스에서 인스브르크까지는 약 323킬로미터로 5시간 걸려 도착했다. 알프스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의 국경이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인구는 820만명, 산악국가로 알프스가 65%를 차지하며 3,000미터가 넘는 곳이 1,000개나 된다.

현지어로 "그리스꽃"은 "신의 은총이 있기를"이란 뜻이다. 종교세가 있어 카톨릭은 봉급에서 2.9%를 댄다.

◆ 인스브르크

알프스의 웅장한 산맥 가운데 조용히 자리잡고 있는 도시로 연중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관광지이다. 1964년과 1976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했다. 알프스 티롤에만 약 119개의 스키 지역이 있고 3,500킬로미터 길이의 슬

지역이나 승용차에 한하고 보통은 최고 103~100킬로미터 이하로 달리게 되어 있다. BMW는 뮌헨에 있고 바덴 바덴은 온천장으로 유명하며 로마의 황제들이 애용했다. 호프 브로이라 하여 동시 3000명용 수용할 수 있는 맥주집이 있다. 뮌헨 맥주는 호프가 들어가야 한다. 옛날에는 상온 발효시켰으나 요즘은 수도원의 창고, 동물에서 차게 발효 시킨다.

일본에서도 영국, 독일 문화를 많이 받아 들었다. 박대통령 때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서 경부 고속도로를 놓는데 크게 기여했다. 프랑크 푸르트에 유로 중앙은행, 보험사 등 건물이 많이 있다. 프랑크 푸르트는 박물관이 시작되면 숙박비가 3배나 된다. 독일에는 예식장이 없고 성당이나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시청에 가서 등록한다. 시청에서 결혼 서약하고 성당, 교회에 안가는 사람도 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괴테가 프랑크 푸르트 출신이고 법대를 다녔다.

◆ 노인슈판스타인성(백조의 성)

오스트리아와 독일 국경에 위치한 독일령의 아름다운 동화의 나라 휘센으로 이동하여 디즈니랜드의 모델로 유명한 노인슈판스타인성의 웅장한 외관과 아름다운 주위경관을 관광했다. 중세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로텐브르크로 이동하여 시청사, 장크트 야곱 교회, 마르크트 광장도 가 보았다.

이 지역과 관련된 인물로 루트비히 2세가 있는데 자연, 예술과 아름다운 알프스 지방의 가무, 바그너를 좋아했다. 이리안족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아버지로부터 왕의 권리만을 배웠다. 18세에 왕이 되어 바그너의 오페라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바이에른 왕가의 의원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41세에 호수에 빠져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우리 일행은 5월 31일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인 로맨틱 가도를 따라 이동하여 브르츠 부르크로 이동했다. 바로크 풍의 왕궁 레지텐츠, 마리엔 부르크 요새 등을 관광하고 프랑크 푸르트로 이동하여 로마 광장, 로마시 청사, 성 바울로메 성당 등을 관람했다.

◆ 레지텐츠

1720년에서 1744년에 걸쳐 독일의 저명한 건축가인 발트 하르트 노이만에 의해 만들어진 궁전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부 독일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아이칭겐의 지붕과 대규모의 계단으로 되어 있다. 베

치아의 화가인 G.티에폴로의 천장화가 잘 보존되어 있고 로코코 시대의 화려함이 극치를 이룬다.

◆ 뢰머 광장, 시청사

기원전 50년경 진출한 로마군이 게르만족에 대한 방비를 한 곳이라서 뢰머 메르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프랑크 푸르트에서 옛 건물이 가장 많이 있던 성당의 서쪽에 위치한다. 1405년 프랑크 푸르트 참의회가 뢰머 베르크에 있던 3채의 귀족 저택을 사들여 시청사로 개조했는데 시청을 뢰머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 성 바울로메 성당

라인강 연안에 세워진 대성당은 뢰머 광장을 끼고, 동쪽으로 자리하고 있다. 95미터의 높은 탑이 하늘을 찌를 듯이 위풍당당히 서있는 고딕양식의 대성당으로 1562~1792년 황제들의 대관식이 거행되었던 곳이다. 카이저 돔이라고도 부른다.

◆ 로멘틱 가도

독일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가도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색창연한 건축물이 즐비한 뷔르츠 부르크에서 시작해 중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작은 마을 로텐 부르크, 그리고 총각지인 휘센의 노인슈판스타인 성에 이르는 약 400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이다.

우리 일행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이동했다. 오후 7시 아시아나기 편으로 프랑크 푸르트를 출발해 6월 1일 12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을 열흘간 매우 바쁘게 다녔다. 서유럽의 나라들은 숲이 우거지고 공기가 매우 좋았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끝)



▲ 밀라노 에마누엘레 2세 회랑.

다. 미켈란젤로의 설계와 구상으로 시작, 총 120년간 공사를 하여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완성되었다.

◆ 콜로세움

베네치아 광장에 있는 포리 임페리알리 거리에서 1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에 소재한다. 베스 파시아 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72년에 시작해 80년에 완성된 원형 경기장이다. 검투사들의 격투 시합장으로 또 맹수들의 사냥 시합장으로 사용되었다. 300년 이상이나 처참한 사투가 되풀이 되다가 405년 오노리우스 황제가 격투기를 폐지했다.

◆ 트레비 분수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운 분수로 교황 클레멘스 12세의 명에 의하여 니콜라 살비나가 디자인하여 30년만인 1762년 교황 클레멘스 13세가 완성했다. 바다의 신 트리톤이 이끌고 있는 두 마리의 말은 격동의 바다와 잔잔한 바다를 상징하고 분수대의 거대한 수반은 대양을 상징한다. 이 분수에서 등을 돌리고 동전을 던져 넣으면 다시 로마에 올 수 있다는 전설로 유명하다. 두 개를 넣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이 이루어 지고, 세 개를 넣으면 이혼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분수 바닥은 세계 각국의 동전으로 가득 차 있다.

◆ 포로 로마노

베네치아와 콜로세움 사이에 위치

의 도시 피렌체로 이동하여 소설 '낭정과 열정사이'의 배경이 되었던 두오모 성당을 관광했다. 두오모 성당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크고 '꽃의 산타 마리아 대성당'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피렌체 공화국과 길드 함께 지은 것으로 1292년에 착공 1446년에 완공했다. 피렌체의 상징물이다. 106미터 높이인 대원개는 필리포 브루넬레 스키페에 의해 1437년에 완성되었는데 3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이며 성당 왼쪽 입구에서 463계단을 올라가 대원개의 옥상에서 피렌체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원개의 천정에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프레스코 형식으로 그려져 있고, 녹색의 대리석으로 된 외관은 장엄하다.

피렌체의 르네상스로부터 물질문명이 시작되어 자동차, 비행기를 만들어가는 이론이 시작되었다. 일반 때문에 산꼭대기에 집이 지어졌다. 남프랑스, 그리스쪽이 기후가 비슷하다. 올리브 나무 하나에서 1년에 올리브 기름이 1리터 나온다.

이곳에서는 높은 지역이 가까이 비싸다. 오래되었다는 전통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탈리아는 게르만족과 켈트족이 키가 작다. 세계 최초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바티칸 박물관 조각상은 그리스에서 배웠다.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신도 다 사람이 만들어졌고 내세가 없으므로 '노세 노세 젊어 노세'의 스타일이다. 2000년 전 상하수도 시설을 했으며



▲ 트레비 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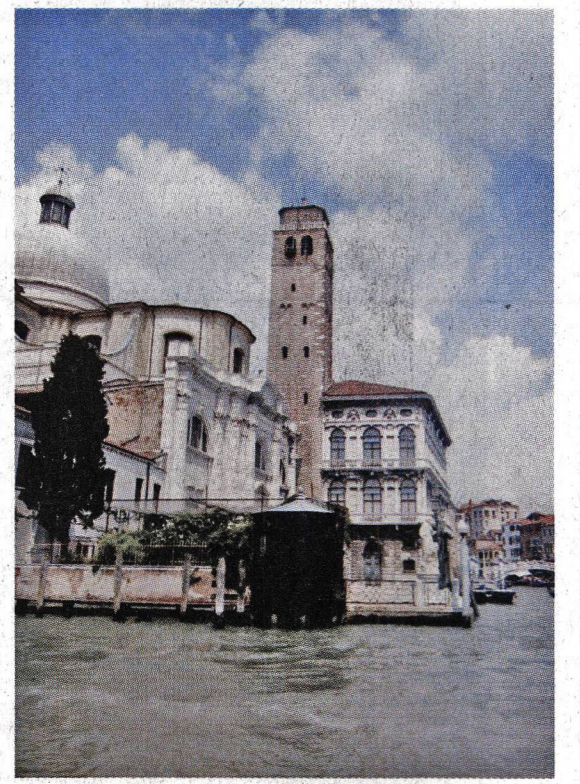
우리 일행은 베니스의 수상택시를 탑승하여 베니스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대운하를 따라 가이드의 설명을 개인수신기를 사용하여 대운하 주변을 둘러 보았다.

◆ 대운하

역 S자형으로 총 길이 3.8킬로미터로 베네치아 중심부를 흐르며 베네치아의 메인스트리트이다. 대운하를 따라 12~18세기에 걸쳐 세워진 대리석 궁전과 산시메오네 피콜로 교회, 페사토 궁전 고딕 건축의 카도로, 베네치아인들하고 내세가 없으므로 '노세 노세 젊어 노세'의 스타일이다. 베네치아는 인구 10만~15만명 정

● 독일

독일의 인구는 8200만명,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4개 있다. 아우토반(고속도로 리는 뜻)은 속도 무제한



▲ 물의 도시 베니스.

Buddhism for
A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를 위한 불교

- 재가불교의 철학
- 재가불교의 국제적 협력방안

The 4th
World Lay Buddhist Forum 2010

제4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2010년 9월 30일(목) ~ 10월 4일(월)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룸(올림픽공원)

문의: 02)508-8933, 552-1080~2

주관: 불교총지종 Buddhist Chongji Order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전통불교문화원

◆ 참가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마곡사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진행되는 2박3일 일정에 함께 참여하실 불자님의 신청을 받습니다.

- 주요진행일정 : 해외재가불교지도자들과 함께
 - * 한국문화체험 및 사찰탐방
 - * 세계대백제전 관람
- 참가인원 : 선착순 10명
- 참가비 : 50,000원
- 모집기간 : 2010년 9월 15일까지
- 문의처 : T. 02-552-1080~3 (배공주)